

직원들이 임금 정하고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 '행복지수 1등 기업'은 달라요

중기진흥공단, 광주·전남 무등·포스포 등 5곳 선정

광주지역 업체인 (주)무등이 '행복지수 1등 기업'으로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광양의 포스포와 니오테크, 여수 하이테크엔지니어링, 함평 와이제이 등 4개 기업이 뽑혔다. 2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 5개 기업을 포함한 40곳을 선정, '우리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이라는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정년 보장과 교육 시스템, 높은 급여, 미래비전이 양호한 복지·근무환경 우수업체다. 공단은 이 책자를 고용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중소기업지식나눔터(www.hit500.or.kr)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책자에 '내 꿈도 관리해주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소개된 무등(대표 김국웅)은 광주 소촌공단에서 전자부품 절연 튜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31%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다. 미국·중국·프랑스 등 2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무등은 1992년부터 직원들이 토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 사측은 국제화 감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격년제로 전 사원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도 무등의 자랑거리다. 광양의 포스포(대표 박성식)는 시스템자동차 프로그래밍 업체다. '회사에 빠를 땀 흘리고 싶은 사람만이 다닌

다'고 소개된 이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일주일간 치른다. 일주일 동안 함께 숙식하고 일하며 팀워크를 살피는 것이다. 포스포는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 초청 워크숍, 해외체험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대기업도 울고가는 중소기업' 하이테크엔지니어링(대표 장영)은 여수에 있다. 석유화학 플랜트 종합 설계와 컨설팅을 하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다. 직원들에게 국제 세미나·컨퍼런스 참석을 독려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자유롭고 능동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부서 순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퇴직연금제도도 운영

하고 있다. 와이제이(대표 배지수)는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부품용 유도구의 국산화를 일관 기업이다. 이 부문 선도기업인 일본 도시바·미쓰이 등에 역수출하고 있다. 니오테크(대표 강석곤)는 국내 최초로 페로니켈을 생산한 업체다. 창립 2년 만에 85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성장만큼 급여와 복리후생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정운권 중진공 광주·전남본부장은 "행복지수 1등기업 발굴 프로젝트가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지역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고용노동부·채용사이트 등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차 디자인 활용 자전거 첫 출시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자사의 인기 자동차 모델들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한 '쏘나타 미니벨로'와 '투싼x MTB(산악용)' 자전거를 출시한다. 사진은 투싼x MTB. /연합뉴스

임금협상, 현대차는 '조기타결' 기아차는 '극한대립' 한지붕 엇갈린 노사관계

한 지붕 아래에서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노사관계에서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21일 임금협상을 조기 타결하면서 노사관계에서 순항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아차는 근로시간제(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갈등으로 2년 연속 무파업을 달성한 현대차와 달리 파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대차의 무파업 타결은 단협 유효기간이 내년 3월까지여서 타임오프 이슈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리 성향의 노조 지

도부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아차는 타임오프제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강성 지도부가 장악한 기아차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발미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의 길을 터놓고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현재까지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조차 못하고 있다. 사측은 타임오프제 이슈가 포함된 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노조는 사측이 불법 파업으로 몰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타임오프제 특별 단체교섭을 제안했다고 불신감을 드

러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그룹의 현대차가 임금협상을 무난히 타결함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타임오프제는 법으로 규정돼 사측이 양보할 여지가 별로 없고, 회사가 무파업에 대한 과격적인 보상안까지 제안해 조합원의 정서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타임오프제 투쟁의 사실상 선봉대 역할을 하는 등 강성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투쟁 방식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지도부의 입지가 많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봇산업 시장 규모 1조원 돌파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시장 규모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지식경제부는 22일 한국로봇산업 협회가 로봇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로봇기업의 총 생산액은 2008년보다 23.4% 증가한 1조202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용 로봇 생산이 18.6% 증가한 8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용 로봇 등 서비스

로봇은 55.6% 늘어난 751억원을 기록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로봇 부품 분야 생산도 전년 대비 46.6% 증가한 112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조사에 응한 260개 기업 가운데 매출 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은 전체의 14.2%인 37개사에 불과한 반면,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체의 84.4%를 차지해 대부분 로봇기업이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자부품 '정보가전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지역 中企 해외마케팅 '버팀목'

전자부품연구원의 '정보·가전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이 해외 시장 개척 성과를 거두고 있다. 22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가전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광주시와 공동추진, 최근까지 모두 1450만 달러의 수출·공급계약 실적을 올렸다.



(주)나눔테크(대표 최무진)는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ICT로드쇼 바이어 상담회'에서 현지 회사에 5년 동안 450만달러 규모의 심장제세동기를 독점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전자부품연구원은 보유 중인 검증 장비를 이용해 심장제세동기 등에 대한 기능 각종 테스트, 신뢰성 검사를 거쳐 제품신뢰도를 높였다. (주)오픈테크놀러지는 멕시코 최대 특수조명 회사(Song Lite)와 500만달러 상당의 3차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조명 OTN(Opening The Nature)을 공급기로 한데 이어 현지에 공동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체온유지 젯병 생산업체인 (주)에스오에스는 지난 6월 ICT 플라자 상담회에 참여해 현지 유통전문회사(Samtack)로부터 500만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현지 흡소공에 출시할 것을 제안받았다. 에스오에스는 이에 따라 해외 본격 공략하기 위해 캐나다 지사 설립을 준비중이다. 전자부품연구원 김세영 광주본부장은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와 전자부품연구원이 꾸준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온 결과"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해 지역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건희 회장 보유주식

지분가치 8조6천억원

30대그룹 총수의 상장사 보유 주식 가치가 올해 들어 평균 3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재벌닷컴이 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을 제외한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총수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지분가치를 전날 종가로 평가한 결과 총 29조737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1월 4일의 22조3950억원에 비해 29.8%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696.14에서 1,748.78로 3.10% 상승에 그쳐 30대 그룹 총수의 주식 지분가치 증가율이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10배

▼ 코스피지수	1,735.53 (-13.25)
▼ 코스닥지수	484.72 (-12.01)
▼ 금리 (국고채 3년)	3.82% (-0.05)
▼ 원·달러 환율	1,204.00원 (-0.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기아 스포티지R, 美 잔존가치 1위

3년후 중고차 가격 66% 인정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사진)이 미국시장에서 높은 잔존가치를 인정받았다. 기아차는 22일 미국 ALG(Automotive Lease Guide)사의 '3년 후 잔존가치 평가'에서 스포티지R 기본모델이 66%를 받아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전 차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차 중에서는 최조다.

잔존가치(Residual Value) 평가는 신차를 일정기간 운행한 후 예상되는 차량의 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스포티지R은 3년 후 중고차로 팔 때 66%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평가에서 스포티지R 전체 운영모델은 61%를 획득해 구형 스포티지(41%)에 비해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쏘울의 58%를 뛰어넘은 것으로 기아차가 받았던 평가치 중 최고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포르테·쏘렌토R 등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기아차들이 이미 미국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하반기 본격 시판될 스포티지R도 뛰어난 가치와 품질로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계를 무대로 일한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DYNASTY COUNTRY CLUB. **다이너스티CC**